

고전을 번역하고 읽고 가르치자!

윤 덕 흥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누구나 고3 수험생 때 한두 번은 느낀 경험이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옆의 아이가 수학책을 보고 있으면, “아, 그렇지. 수학부터 먼저 해야지.” 라면서 수학문제를 풀다가, 또 다른 급우가 물리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덩달아 마음이 불안해져 자기도 물리책을 꺼내는 등, 하루종일 이 책 저 책 꺼내기만 하였지 제대로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한 과목은 하나도 없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만 경험을. 고3 수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공부를 정말로 잘 하는 사람은 남들이 무엇을 보고 있던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을 말이다.

지금의 대학생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해매다가 사회로 진출하기는 마찬가지다. 남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아마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 교양도서도 전공서적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 술한 책들을 언제 모두 읽을 것인가? 이것 저것 뒤지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시간과 정력의 낭비인가.

필자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경제적인 공부방법으로서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학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골자들, 즉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사색의 재료와 그 연구방법론이,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대석학들의 자기 사회이해를 위한 각종의 사색들이 이미 고전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고전읽기야말로 시간과 노력을 가장 절약하는 공부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읽어야 할 분량도 그리 많지 않다. 학문 영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개 수십 권 이내이며, 전공 영역에서의 고전은 더구나 그리 많지 않으므로 독서계획을 세워 읽되,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몇 번에 걸쳐 정독할 필요가 있다. 수십 권의 책을 정신집중하여 몇 차례 읽는 것으로 자기 분야의 기초가 닦여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재료를 얻는다면, 서점가에 꽂힌 그 수많은 책들을 기웃거리며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는 것보다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독서방법인가! 고3 때 영어책, 수학책, 물리책 번갈아 가며 꺼내다가 아무 것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였던 기억을 되살려 보자. 이 책 저 책 뒤적이며 고민하지 말고 3~4년 정도를 투자하여 자기 분야의 고전을 읽어보기로 하자. 그간 난감하였던 문제들, 계통을 잡지 못해 방황하던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리라.

일본에 大塚久雄(오오츠카히사오)라는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론을 계승한 제자들이 워낙 많아 오오츠카학파라고 불리워질 만큼 전후 일본 근대주의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필자가 동경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시절, 지도교수의 소개로 그의 은퇴 직전 만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후진국의 사회 발전, 특히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한 이론에 관심이 있어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며 고민하고 있던 당시의 필자에게 그는 자기의 청년시절 일본사회의 모습과 이를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독서를 하였던가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을 두루 망라해 오늘의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학자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를 꼽았으며, 자기는 이들 두 학자의 저서를 붓으로 써내려가면서 무려 8번을 읽었다고 하였다. 전후 일본사회의 개혁과 근대주의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오오츠카사학은 이렇게 하여 탄생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방황하고 있던 필자에게 그의 공부방법은 가히 복음처럼 들렸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눈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본다는 것, 두 사람의 저서를 정독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경제형 독서방법인가.

그런데 고전을 읽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곧 알게 된다. 우선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년을 투자해 외국어를 공부한 후 또 수년을 투자해 고전을 읽고 그리고 이를 소화시켜 겨우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질

만큼 되었을 때는 이미 다 늙은 후이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며,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는 결국 국력의 낭비가 된다. 만일 참으로 믿을 만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한 고전 번역물이 있다면 외국어를 공부할 수년의 노력이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한문, 그리스어, 라틴어, 힌두어,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된 고전들이 우리말로 쉽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까. 동경대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한때 산스크리트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해석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워낙 그 작업이 난해하기 때문에 선배가 해석해 놓고 나간 그 뒷줄을 후배들이 해석하고 또 그 후배가 그 뒤를 잇고……。 이렇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파니샤드 해석본이 탄생하였다고 하며, 지금의 철학과 학생들은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아주 쉽게 인도철학에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경제적인 방법인가.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岩波(이와나미) 출판사에서는 잘 팔리는 책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잘 안 팔리는 책도 그 만큼 출판한다고 한다. 평생을 아담 스미스만 연구한 교수에게 아담 스미스의 저작품 번역을 부탁하고, 그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에 오역없는 쉬운 일본어로 된 책임질 만한 번역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복잡한 전철 속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출간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문고판 시리즈 안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존 로크의 민약론, 루소의 에밀 등 주옥 같은 고전들이 들어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이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번역물이 출판되고 있음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오역, 앞뒤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졸속번역, 번역본을 또 번역한 중역본, 대학원 학생들의 번역에 교수의 이름만 올린 감수본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교수들도 좀 더 큰 눈으로 번역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별로 읽히지 않는 논문 몇 편 발표하느니 차라리 각자가 연구하는 영역의 고전이라고 불리울 만한 저작품을 알기 쉽게 충실히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위해서, 우리 학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우리 사회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훗날 대학자의 탄생을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한문으로 된 각종 고전들, 그리스어·라틴어로 된 서양의 고전들, 산스크리트어·힌두어·티베트어로 된 동양의 고전들이야말로 이 방면 전문가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고전 번역을 업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며, 학

생들도 고전을 읽는 세미나를 스스로 운영해 수업시간에 나오는 각종 고전들을 자발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나 마르크스의 저서가 결코 경제학 분야의 이야기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며, 로크와 루소의 저서가 정치적 내용만이 아니며, 퇴니스와 막스 베버의 작품이 사회학에 관한 것만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의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가히 모든 학문을 동원한 것인 만큼 고전은 학제간 연구 테마의 집대성인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전을 공부한 후, 서점가에 꽂힌 서적들을 바라보면 꼭 읽어야 할 책은 그리 많지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에 정력을 쏟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우리말로 잘 번역된 고전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노력을 절약하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고전을 번역하고 읽고 가르치자. ★

윤덕홍/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 사회학연구과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있으면서 기획처장 등을 지냈고, 대구광역시 21세기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들』, 『현대 속의 한국사회』 등이 있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 이론의 변천”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